

휘발유, 1900원대 강세 지속

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.

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7월 둘째 주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리터당 6.3원 올라 1927.3원으로 나타났다.

휘발유 판매가격은 최근 3주 동안 연속 상승한 후 전주에 하락세로 돌아섰다.

자동차용 경유는 리터당 3.0원 오른 1748.5원으로 1주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, 실내등유는 1.6원 내린 1349.5원으로 3주 연속 하락했다.

석유제품 주유소 판매가격 변화

(단위: 원/ℓ)

구 분	2010	2011/5	6/4주	6/5주	7/1주	7/2주	등 락
보통휘발유	1,710.4	1,938.5	1,918.4	1,921.7	1,921.1	1,927.3	↑ 6.3
자동차경유	1,502.8	1,772.9	1,741.3	1,746.4	1,745.5	1,748.5	↑ 3.0
실내등유	1,076.0	1,362.4	1,353.2	1,352.7	1,351.0	1,349.5	↓ 1.6

휘발유 판매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2009.2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(1950.2원), 경기(1939.1원)가 비교적 높았으며 광주(1904.4원), 전남(1906.4원), 경남(1911.1원)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.

7월 첫째 주 정유기업의 공급가격은 최근 2-3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약세가 반영되면서 소폭 하락했다.

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대비 2.0원 하락한 리터당 855.2원, 경유는 1.3원 내린 927.9원을 나타냈다.

<화학저널 2011/07/18>